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2022년 제4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2. 일 시: 2022. 10. 28 (금) 15:00~17:30
3. 발표자: 중국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 우샤(吴萨) 부소장

1. 지난 5년 및 신시대 10년간의 경제·사회 분야 발전성과

□ 19차 당대회 이후 5년은 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었음.

-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전략 구도와 백 년 만의 세계 대격변을 통합하여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전략 배치를 하였고, 당과 군대, 전국 모든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켜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한 리스크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분발하여 노력하는 정신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부단히 추진하였음.

□ 지난 10년간 우리는 당과 인민 사업에 있어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장구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경험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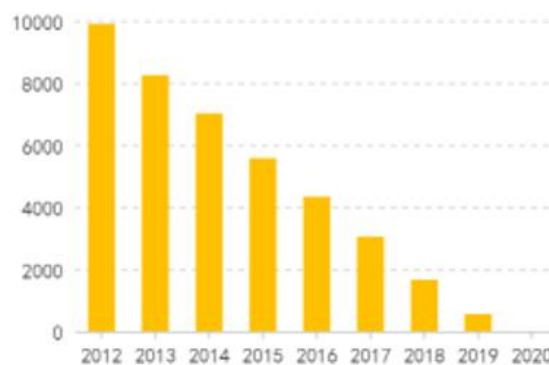
- 첫째,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것; 둘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것; 셋째, 탈빈곤을 실현하여 전면적인 샤오강(小康)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성해 첫 번째 백 년 목표를 실현한 것임.
- 이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단결·분투하여 얻어낸 역사적 승리, 중화민족의 발전사(史)를 빛낸 역사적 승리, 세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승리임.

- 당 중앙은 시기와 정세를 잘 판단하여 과감히 결정을 내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힘써 향상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당과 군대, 전국 모든 민족을 단결시켜 소매를 걷고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비바람을 무릅쓰고 전진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가진 많은 위대한 투쟁을 진행했음.

□ 중국은 지난 10년간 경제·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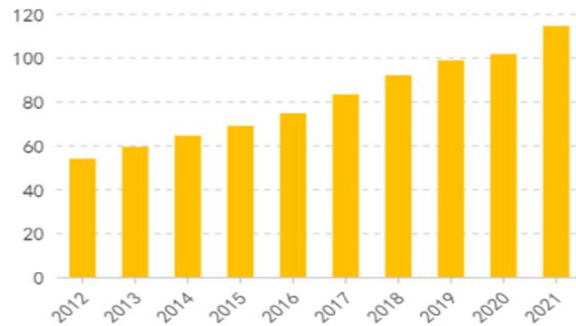
-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탈빈곤을 실현하여 절대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고 전 세계 빈곤 감소 사업에 중대한 공헌을 함.
 - 전국 832개 빈곤 현(县) 모두 빈곤에서 벗어남.
 - 현 기준으로 볼 때 9,899만 명 농촌인구가 모두 빈곤에서 벗어남.
 - 전 세계 빈곤 감소에 대한 기여율이 70% 이상에 달함.

그림 1. 2012~2020년 중국 빈곤인구 수 추이(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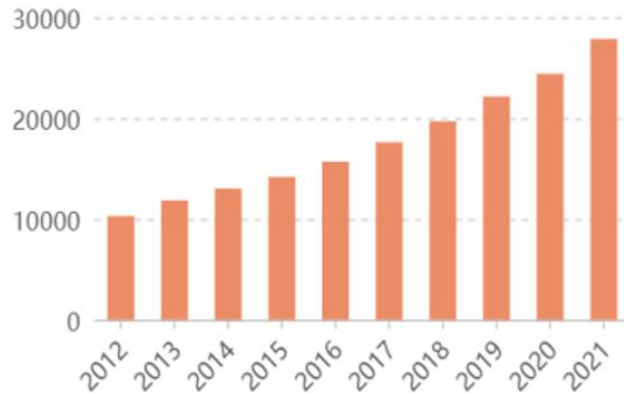
- 경제력에서 역사적 비약을 실현함.
 - 경제총량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함.
 - 1인당 GDP가 39,800위안에서 81,000위안으로 늘어남.
 - 곡물 총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장함.
 - 제조업 규모와 외환보유액이 세계 1위를 차지함.

그림 2. 2012~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 추이(조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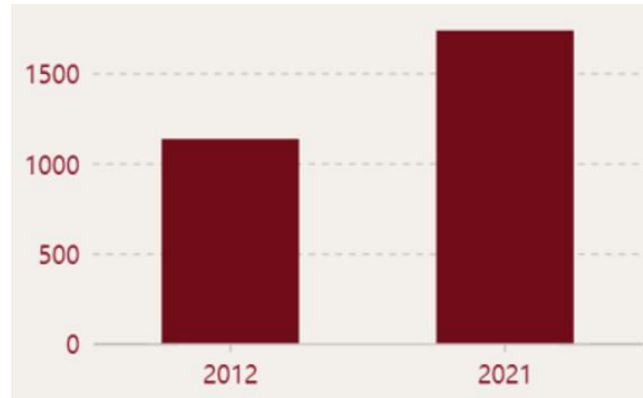
-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 가속 추진되어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함.
 - R&D 비용 지출이 1조 위안에서 2조 8,000억 위안으로 늘어나 세계 2위를 차지함. R&D 종사자 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함.
 -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혁신을 부단히 강화하여 일부 관건이 되는 핵심기술에서 돌파를 이루어냄.
 - 일부 관건이 되는 핵심기술에서 돌파를 이루어 전략적 신흥산업이 강하게 성장하고 여러 중대 성과를 달성함.

그림 3. 2012~2021년 중국 R&D 비용 지출액 추이(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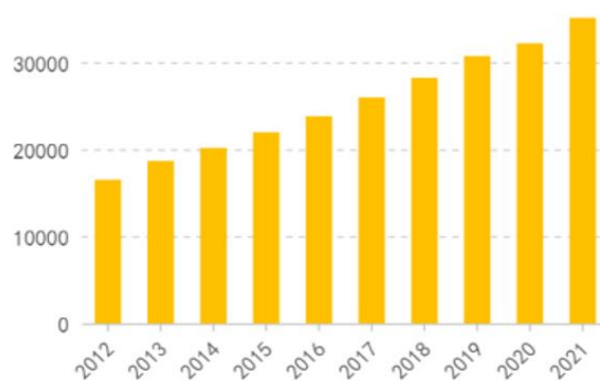
- 적극적·주도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여 외자 유치와 대외투자가 세계 선두에 오르고 더 큰 범위, 더 넓은 분야, 더 심도 있는 대외개방 구도를 형성함.
 -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가 많은 환영을 받는 국제 공공재 및 국제협력 플랫폼이 됨.
 - 140여 개 국가·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이 되었고 상품무역 총액이 세계 1위를 차지함.

그림 4. 2012년과 2021년 중국의 실제이용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비교(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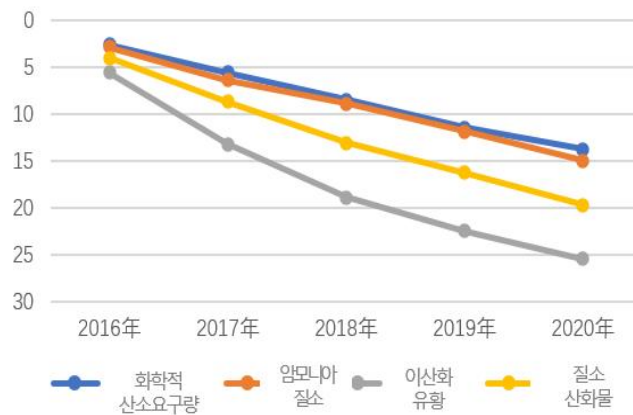
- 인민 생활이 전방위적으로 개선됨.
 - 1인당 기대수명이 78.2세로 늘어남.
 - 1인당 가처분소득이 16,500위안에서 35,100위안으로 증대됨.
 - 도시지역 연평균 신규취업자 수가 1,300만 명 이상에 달함.
 -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 수가 10억 4천만 명에 달하고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이 98% 수준으로 안정됨.
 - 2,400여만 채의 판자촌 주택과 2,400여 만 가정의 농촌위험주택을 개조함.

그림 5. 2012~2021년 중국의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 생태환경 보호 측면에서 역사적·전환적·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함.
 - ‘녹수청산(绿水青山)이 곧 금산은산(金山银山)’이라는 이념을 견지함.
 - 산·수·임·전·호·초·사(山水林田湖草沙)의 통합적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추진함.
 - 생태문명 제조 시스템을 더욱 완비함.
 - 지급(地级) 및 지급 이상 도시지역에서 흑취수체(黑臭水体, 검고 악취가 나는 물) 제거 비율이 96% 이상에 달함.
 - 에너지 소비 증가분 중에서 60% 이상이 청정에너지를 통해 공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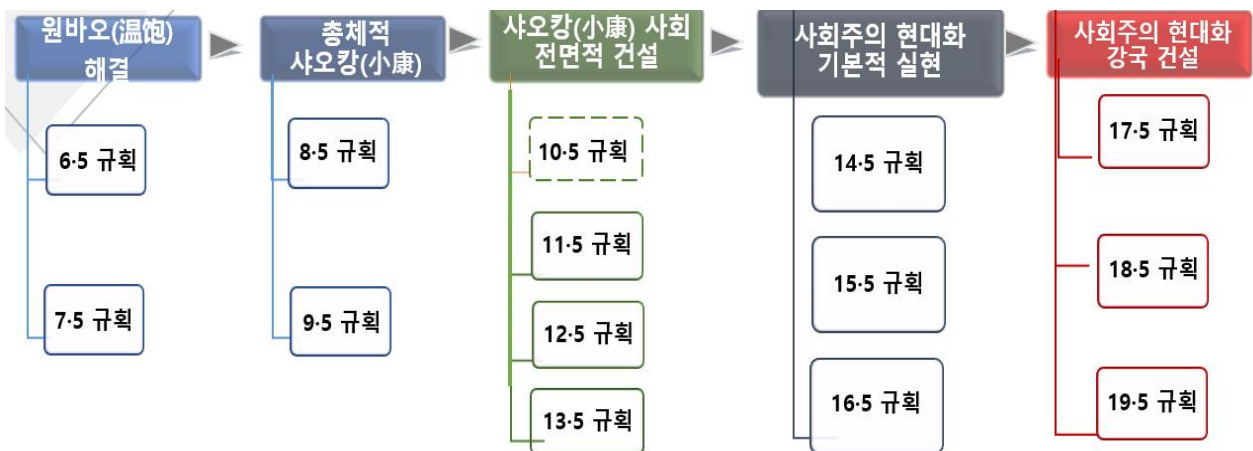
그림 6. 2016~2020년 중국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이



2.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 향후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는 바로 전국의 모든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여타 국가의 현대화와 공통점도 있지만 자체 국정에 기반한 중국 특색이 더 짙은 현대화임.
-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 △전체 인민이 공동부유한 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평화롭게 발전하는 현대화임.

그림 7.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종합 전략 배치



□ 신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 추진에 주력함.

-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우선적 임무임.
 - 발전은 공산당 집정과 국가부흥의 가장 주요한 임무임.
 - 반드시 신발전 이념을 완전하게·정확하게·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과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견지함으로써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함.
 - 고품질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내수 확대 전략 실시와 공급측 개혁 심화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국내 대순환의 내생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제순환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켜 현대화 경제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 향상, 산업망·공급망의 저력과 안보 수준 향상, 도농 간 융합발전과 지역 간 조화발전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양적 성장을 실현해야 함.
-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함.
- 현대화 산업시스템을 건설함.
 - 경제발전의 역점을 실물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신형 공업화를 추진하여 제조강국·품질강국·항공강국·교통강국·네트워크강국·디지털중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함.
- 농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
-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함.
 -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무역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다원화되고 안정적인 국제경제 구도와 경제무역 관계를 수호해야 함.

□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부흥 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을 위한 인재 기반을 강화함.

-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를 가속화하고, 인재강국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함.
-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하며, 인재 혁신의 활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혁신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완벽함.
- 과학기술 자원 배치를 통합·고도화함.
 - 국가실험실을 주도로 하는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구축을 가속화함. 중대 혁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여러 국가실험실을 편성하고, 국가 중점실험실을 재편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운행되는 실험실 시스템을 형성함.

- 원천적·선도적 과학기술 돌파력을 강화함.
 - 전략적 과학계획과 과학공정을 제정·실시함.
 - 일련의 선도적·전략적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실시함.
 - 우수한 자원을 집중하여 관건 핵심기술을 돌파함.
-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
 -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을 제정·실시함.
 - 기초연구 비용 투입이 전체 R&D 비용 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 이상으로 함.
 - 기초연구에 유리한 양호한 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함.
- 중대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을 건설함.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등에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함.
 - 베이징 화이러우(北京怀柔), 상하이 장강(上海张江), 다완취(大湾区), 안후이 허페이(安徽合肥) 등의 지역에 복합적인 국가 과학센터를 건설함.
 - 여건을 갖춘 지역에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함.
-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함
 - 인재 성장의 법칙과 과학연구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은 국제 일류의 전략적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선두인재와 혁신그룹, 국제경쟁력을 갖춘 청년 과학기술 예비인재를 양성함.
 - 더욱 개방적인 인재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위해 국제경쟁력과 흡인력이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며 외국 국적 과학자들이 중국 과학기술 학술조직에 임직되는 것을 지지함.
 - 혁신능력, 품질, 효율, 기여도를 위주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 평가시스템을 구비하고, 과학연구 인력들에 대한 직무 내 발명성과 이익배당 메커니즘을 완비
- 경비 지출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메커니즘을 완비함.
 -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며 기업이 R&D 비용을 확대하도록 장려함.
 - 과학기술연구 재정투입 시스템을 통합하여고 부서별로 분할되고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상태를 개선
 -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결합한 자금지원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인력들에게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함.
 - 과학기술 평가시스템을 완비하고 자유탐색형과 임무주도형으로 분류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평가제도를 구비함.
- 기초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
 - 전략 유도형, 응용 지원형, 선행 선도형, 민생 개선형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공유수준과 사용효율을 향상함.
 - 자연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국가 야외과학(野外科学) 관측연구소(망)와 과학 빅데이터센터를 집약적으로 건설함.
 - 국가 과학연구 논문과 과학기술정보 고급 교류플랫폼을 구축함.

표 1.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국가 중대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주요 내용
전략 유도형	△우주환경 지상 모니터링망 △고정밀 지상기반 시보시스템 △대형 저속 풍동 △해저 과학관측망 △우주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핵융합로 본체 핵심 시스템 종합 연구시설 등 구축
응용 지원형	△고에너지 싱크로트론 방사광원 △고효율·저탄소 가스터빈 테스트 장비 △초(超)중력 원심분리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장비 △가속기 구동 핵변환 연구장치(CIADS) △미래 네트워크 테스트 시설 등 구축
선행 선도형	△경(硬) X선 자유 전자레이저 장치 △고(高)해발 우주방사선 관측소 △중합 극한조건 실험장비 △정밀 중력 측량 연구시설 △심지층 극저 방사 백그라운드 선행 물리 실험시설 △강(鋼)자기장 중이온 가속기 장치 등 구축
민생 개선형	△증개의학 연구시설 △다모형·다척도 바이오의학 영상시설 △동물모형 표현형 및 유전 연구시설 △지진과학 실험장 △지구시스템 수치 시뮬레이터 등 구축

표 2. 14차 5개년 계획 내 과학기술 선행 분야 집중개발

분야	주요 내용
차세대 인공지능	△선도성 기초이론의 성과 확보 △전용 칩 연구개발 △딥러닝 프레임 워크 등 오픈소스 알고리즘 플랫폼 구축 △추론과 의사결정, 그래픽, 음성·영상, 자연어 식별 및 처리 등 학습 분야의 혁신
양자정보	△도시권 간 및 도시 간 △자유공간 양자통신 기술 연구개발 △범용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및 실용화 양자 에뮬레이터 연구개발 △양자 정밀측정 기술 확보
집적회로	△집적회로 설계 도구, 핵심 장비 및 고순도 표적재 등 핵심소재 연구개발 △집적회로 선진공법,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MEMS) 등 특색 있는 공정 개발 △첨단 메모리 기술 업그레이드 △탄화규소, 질화갈륨 등 광대역 밴드갭 반도체 발전
뇌과학 및 관련 연구	△뇌인지 원리 해석 △뇌 메조스코픽 신경 연결 지도 제작 △뇌 중증질환 메커니즘 및 관련 연구 △아동 및 청소년의 지력 발육 △뇌 모방 컴퓨팅 및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유전자 및 바이오기술	△유전체학 연구 응용 △생물안전 핵심기술 연구 △유전세포, 유전육종, 합성생물, 바이오의약 등 기술혁신 △백신, 체외진단, 항체약물 등 연구개발 △농작물, 가축·수산, 농업 미생물 등 중요 신품종 개발
임상의학 및 보건	△암질환과 심뇌혈관, 호흡기, 대사성 질환 등의 발병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연구 △능동적 건강관여기술 연구개발 △재생의학, 마이크로바이옴, 신형 치료 등 선도기술 연구개발 △중대 전염병과 중대 만성 비(非)감염성 질환의 예방·치료 관련 핵심기술 연구
우주, 지하, 심해 및 극지 탐사	△우주 기원과 진화, 심층 지각 등 기초과학 연구 △화성 순회, 소행성 순시 등 행성 간 탐사 △차세대 중형 운반 로켓 및 우주운송시스템 재사용, 지구 심층부 탐사 장비, 심해 운송 보장 및 장비실험선, 극지 입체관측 플랫폼 및 중형 채빙선 등의 연구개발 △달 탐사 제4기 사업, '자오룡(蛟龍)' 심해 탐사 제2기 사업, '췌룡(雪龍)' 극지탐사 제2기 사업 등 추진

□ **민생복지와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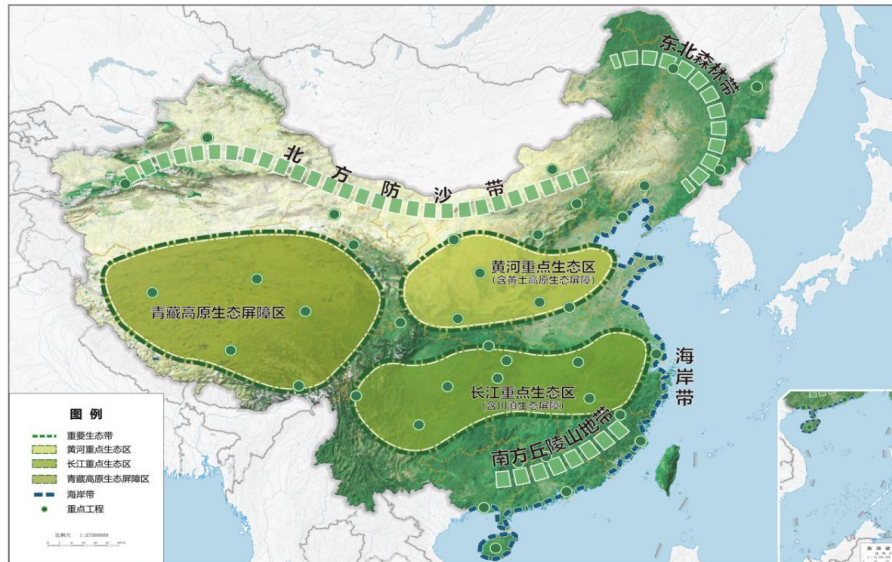
- 분배제도를 개선함.
 - 노동에 의한 분배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 다양한 분배방식을 병행하며,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 원칙을 견지하고 근면한 노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장려하며 기회의 공정성을 촉진함.
 -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고, 중소득층의 규모를 늘리며, 소득분배 질서와 부의 누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함.
- 취업 우선 전략을 실시하고 취업 우선 정책을 강화함.
 - 취업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고 빈곤층의 취업 보장 및 지원을 강화함.
 - 평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과 고용차별을 제거하여 누구나 근면한 노동을 통해 자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
-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함.
 - 전 인민 대상·도농통합·공평통일·안전규범화·지속가능·다차원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함.
 - 남녀평등 등 기본 국가방침을 견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 사업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함.
 - 공급 주체와 보장 방식이 다양한 임대·구매 병행의 주택제도 제정을 가속화
- '건강한 중국' 건설을 추진함.
 - 인민의 건강 보장을 우선적인 발전전략으로 배치함.
 - 출산지원 정책 시스템을 구축함.
 -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함.
 - 중의약(中医药)의 계승과 혁신 발전을 촉진함.
 - 공공위생 시스템을 완비하며 중대 전염병 예방관리 및 구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중대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함.

□ **녹색발전을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함.**

- 발전방식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함.
-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를 심도있게 추진함.
- 생태시스템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함.
 - 중요 생태시스템 보호 및 중대 프로젝트 복원을 가속화함.
 - 생물 다양성 보호 중대 프로젝트를 실시함.
 - '장강 10년 어획 금지'를 확실하게 실시함.

- 경지에 대한 휴경 윤작 제도를 완비함.
- 외래 침입종의 침해를 예방 및 관리함.

그림 8. 중요 생태시스템 보호 및 중대 프로젝트 복원 분포도



-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함.
- ‘2030년 이전 탄소배출 피크’ 행동방안을 제정함.
- 여건을 갖춘 지방과 중점 산업·기업의 피크 우선 달성을 지지함.
- 더욱 강력한 정책과 조치를 실행하여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그림 9. “14·5” 계획 기간 대형 청정에너지 기지 분포도



3. 재중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건의

- 중국 개방의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넓게 열릴 것임.
- 한·중 양국 기업은 국제표준 제정, 국제시장 개척, 지역 일체화 참여 등 분야에서 탐색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 기업이 20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경제·사회 분야의 여러 건설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환영함.

질의응답(Q&A):

Q 1.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경제 부흥을 위해서 국유기업(국유자산)을 개혁하고 그 과정에서 소유제 개혁이나 국유자산의 민영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국유기업을 해외 자본에 개방하는(국유기업이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도 장려되어왔음.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법률 동향을 보면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배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앞으로 20차 당대회 이후 시장이 점점 더 개방될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국유기업(국유자산)에 대한 해외 개방도 확대될 것인지?

A 1. 올해 4월에 《중공중앙·국무원의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이 발표되었음. 제가 이와 관련된 문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최근 몇 년간 중공중앙·국무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문건을 연속으로 4~5개나 발표했음. 그중에서 이 문건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 통일대시장 체계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자금, 상품 등 시장 자원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소유제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임.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요소의 이동이나 인수·합병 등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국유기업이 외자기업을 인수·합병하든 외자기업이 국유기업을 인수·합병하든 모두 정상적인 시장 행위이며, 신발전 구도 구축과 고품질 발전 추진 및 기업의 질적 성장에 유리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지지함. 이러한 여러 가지 발전에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문건에서 제시한 제거해야 할 요소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안보 문제나 국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정상적·합법적인 시장 행위는 모두 지지함.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기조에 따라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임.

Q 2. 발표에서는 성과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셨음. 그러나 향후 5년간의 정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한 냉철한 평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일부 내용들이 당대회 보고에도 나와 있으나 주로 대내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음. 우쎈(吴萨) 소장님이 볼 때 현재 중국이 대외적으로 겪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는 어떤 대응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2. 20차 당대회 보고와 시진핑 주석의 지난 여러 차례 연설에서 모두 ‘백 년 만의 세계 대격변’이라는 국제정세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는 현재 모든 국가와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해 있는 객관적인 국제정세임. 현재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과 경제성장의 변동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외부적으로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 위기가 배회하고 있음. 이 자리에 계신 기업 인사들이 최근 몇 년간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중국이 대국으로서 우선 자기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임무이며 이에 비해 대외적인 이슈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함.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해야만 여러 가지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자기의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매우 사소한 외부 충격이 와도 내부적인 문제들과 엉켜 더 크게 번지게 될 것임. 중국이 신중국 건국 70주년과 개혁개방 40주년을 넘어섰는데 그동안 세계는 조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말했듯이 중국은

세계 경제·정치 질서를 지켜주는 균형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자기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을 통해 전 세계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노력할 것임. 이것은 대국이 저야 할 역사적 책임과 사명임.

Q 3.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개방정책이나 시장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고자 함. 먼저 이번 당대회 보고의 내용을 보면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향후 경제활동의 주체로써 정부의 역할 확대나 시장에 대한 개입 확대, 국진민퇴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두 번째는 제도형 개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전의 개방은 제도화되지 못한 임의적인 개방이었음을 의미하는지, 개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의 제도나 표준 등을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그 정확한 함의를 여쭙보고 싶음.

A 3. 이른바 ‘국진민퇴’나 ‘민진국퇴’는 시장화된 용어임. 20차 당대회 보고뿐만 아니라 이전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한 바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 동요치 않음(两个毫不动摇)’임. 즉 공유제 경제를 굳건히 발전시키는 것과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 것을 절대 동요치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임.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민영기업의 발전환경을 개선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들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민영경제의 발전·확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그리고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제도형 개방’은 여러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우선은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임. 상품이나 기타 면에서 개방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표준도 개방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음.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자유무역구를 추진해 왔는데 자유무역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가 바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임. 네거티브리스트의 의미는 리스트에 제시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를 모두 허용한다는 뜻임. 이런 혁신형 제도는 외국인투자의 발전을 매우 크게 촉진했음.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구 건설에 대해서도 제기했음. 세계를 향해 열린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확대 건설할 것임. 중국이 세계시장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음.

Q 4. 2016년에 시진핑 주석이 숭안신구(雄安新区)를 지정했음.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면서 그쪽으로 힘이 많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음. 현재 숭안신구 건설 상황과 한국 기업이 숭안신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음.

A 4. 제가 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획사(规划司)에서 일했을 때 숭안신구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투자 등에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적이 있음. 숭안신구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베이징(北京)의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미래 경제 신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숭안신구는 건설의 출발

점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 도시 규모가 큰 개방적인 도시가 될 것임. 송안신구의 건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인프라 건설과 도시 구조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음. 앞으로 송안신구의 도시 프레임이 점차 형성됨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완비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단계에는 다른 정상적인 도시들처럼 전 세계를 향해 많은 투자유치를 진행할 것임. 도시는 반드시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건설에 참여해야 번영한 도시로 건설될 수 있음.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많은 기관도 송안신구로 이전할 계획임. 송안신구가 교통, 인재, 자원 등을 모두 갖춘 클러스터로서 도시의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고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임. 저는 현재 송안신구 건설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한국 기업이 송안신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베이성(河北省)에 있는 송안 관리위원회의 비즈니스 협력 부서에 연락하여 문의할 것을 제안함.

Q 5. 최근에 증시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던 것 중 하나가 민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제재들임. 지금까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영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앞으로 국영기업이 좀 더 주도하는 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음. 민영기업이 그동안 해온 역할 그리고 향후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함.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지금까지 개방에 있어서 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의 일대일로 전략 등에서 민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영기업들이 해외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하는 방법도 있을지?

A 5. 어떤 나라든 언론이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을 수 있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가진 목적이 다르므로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들도 서로 다를 수 있음.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려면 정부 문건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동요치 않음(两个毫不动摇)’ 원칙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줄곧 견지해 왔고 또한 최근에도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임.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음.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에서 발표한 문건으로 일반적·개별적인 추측보다 더욱 정확한 것임. 그리고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외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동시에 추진해 왔음. 경제학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각자의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서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행위임. 중국정부는 그동안 투자주체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한 적이 없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함. 중국 민영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사례들이 많이 있음. 이런 사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모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임.

Q 6. 오늘 발표에서 중국이 앞으로 실물경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허용,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개방 등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A 6.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는 ‘경제발전의 역점을 실물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제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고품질·고효율의 서비스업 체계를 구축하여 현대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현대농업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표현도 있음. 경제발전의 역점을 실물경제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기한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님.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재공업화(re-industrialization)의 추진, 산업 공동화 방지

등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그동안 중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서비스 경제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맞는 이론을 정립해 왔음. 이 두 가지 경제 간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만 남기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논리가 아님. 현대 경제체계는 절대로 금융과 인터넷 경제를 떠날 수 없음.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음.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무엇을 위해 서비스하는가 하는 문제임. 만약 경제발전의 역점을 가상경제에 두고 실물경제를 소홀히 한다면 경제체계의 안보와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발생할 것임. 우리는 반드시 실물 경제, 금융경제, 인터넷 경제 등이 서로 촉진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경제체계를 이루어야 함.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며,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만 성장을 이룰 수 있음. 의심 할 여지 없이 부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실물경제임.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했을 때 경제발전의 역점을 실 물경제에 둔다는 것에는 부를 창출하는 산업을 우선 존중한다는 함의가 내포된 것이지 금융이나 기타 서 비스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님. 객관적으로 볼 때 현대 금융업과 정보기술 산업 등 여러 가지 현 대서비스업을 떠나서는 실물경제의 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